

경인고속도로부천시소유토지환원촉구결의안

의안번호	제346호
의결년월일	2000. 7. 6 (제79회)

발의년월일 : 2000. 7. 3

발 의 자 : 김종화 의원 외 28인

1. 주 문

- 1969. 2. 25일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상에 위치한 21필지 3만여 평의 부천시 소유토지를 한국도로공사가 무단점용하고 있는 바, 이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므로 그간의 무단점용에 대한 적정금액을 조기에 완전보상한 후 도로기능확보를 위해 매입하거나 반환해 줄 것을 별첨과 같이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부천시의회 의원은 30여 년 간 불법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한 경인고속도로 내의 부천시 소유재산은 즉시 환원하고 그간 사용한 점용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 한국도로공사는 부천시 소유 경인고속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SOC투자기획단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서울의곽순환도로 자치단체 부담금 522억원 중 32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분담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졸속한 대응이므로 즉시 소송을 취하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 서울의곽순환도로 건설사업비 부천시 부담금은 중동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상업용지를 모두 매각해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약속하였으나 중동신도시 상업용지분양률이 저조하여 개발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반환을 촉구하는 것은 부천시민을 우롱하는 비민주적 처사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결의한다.

3. 철 부 : 경인고속도로부천시소유토지반환촉구결의문(안) 1부

경인고속도로부천시소유토지반환촉구결의문

부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함은 물론 지방자치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소유 토지 반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부천시의회는 한국도로공사 경인고속도로 부천구간에 위치한 부천시 소유 토지(3만여 평)에 대해 그간 사용한 도로 점용료를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즉시 매입하거나 반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 부천시민의 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일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도 부천시민을 우롱하고 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그간 부천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남용하여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한 정신적 보상을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부천시의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부천시 재산을 강제로 징발하여 도로를 개설하고도 그 주인인 부천시민에게조차 도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임을 부천시민에게 호소할 것을 결의한다.
4. 서울의곽순환고속도로는 부천시 도시구조를 동서로 분단하여 시민 생활권을 양분함으로써 부천시 의 장래 발전을 저해하고 소음과 매연으로 부천시민의 생활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장본인임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5. 또한 중동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상업용지를 매각해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서울의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 부담을 약속했던 사항인 바, 부천시가 중동신도시 상업용지 분양이 저조하여 개발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더 이상의 분담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결의한다.
6. 부천시의회는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소유 토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한국도로공사의 확고한 의견제시가 있을 때까지 서울의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어떠한 협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7. 부천시도 시민의 뜻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소유토지를 즉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0년 7월 6일

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